

제233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우리 대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미경의원

◎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구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0~1960년대 콩보리밥이나 주먹밥을 푹푹 찐 도시락 보자기, 1960년대 무밥과 시래기밥, 1970년대 숟가락이 덜컹거리던 양은도시락, 1980년대 등장한 보온도시락은 각 시대별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던 추억에는 도시락 싸올 형편이 못돼 식수대에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반찬이 변변치 않아 도시락 뚜껑을 가리고 허겁지겁 먹던 도시락 세대의 아픈 기억도 함께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어려운 살림살이라 도시락 형편이 다들 비슷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1998년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전면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1999년 2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었고, 그 후 2002년을 기점으로는 중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추진현황

연도별	대 상	지원 단가	분담 비율(%)		
			교육청	광역	기초
2011	초1~2학년	학교별 급식비 단가	20	60	20
2012	초1~4학년	학교별 급식비 단가	20	60	20
2013	초1~5학년	학교별 급식비 단가	20	60	20
2014	초1~6학년	2,250원	20	60	20
2015	초1~6학년	2,250원	20	60	20
2016	초1~6학년	2,350원	30	50	20
2017	초1~6학년, 중3	초1~6학년: 2,850원 중3: 학교별 급식비 단가	40	40	20

학교급식의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부터 본격화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해 6월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무상급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당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차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난항을 겪었고, 그 결과 2011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 60%, 자치구 20%, 교육청 20%의 분담비율로 타 시도보다 어렵게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마다 무상급식 범위 확대와 예산 부담비율로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였고, 올해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 40%, 자치구 20%, 교육청 40%의 부담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산초 불량급식 사태로 촉발된 안전한 학교급식 문제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초등학교 급식지원단가를 학생 1인당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3학년에 한해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현황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근지역인 충남, 충북, 세종, 전북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전남, 전북, 세종의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의 학부모들은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학교급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현재도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수혜 학생에게 차별이나 모멸감,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낙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낙인감은 통제기관에 의해 수급권자 등으로 규정되는 경우와 본인 스스로 수치감, 차별감 등을 느끼는 자기 낙인감(self-stigma)으로 분류됩니다.



외부에서 규정하는 낙인도 문제지만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느끼는 자기 낙인감은 지원정책에 있어 그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우려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류로 소득상황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는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과 신용불량 등으로 신(新)빈곤층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급식비를 제때 내기 어려운 학생들도 늘고 있어 이 학생들의 자기 낙인감도 새롭게 문제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기 낙인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이미 종지부를 찍고, 보편적 복지를 향한 무상급식 확대 자체에는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정적인 예산을 이유로 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관한 철학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설동호 교육감이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전제로 대전시와 예산 분담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어린이집 550억 원의 예산 규모라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약 171억 원의 추가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1. 2017년 누리과정 예산지원 현황

지원내역	예산액(단위 : 천원)	비고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55,749,600	
유치원 교육비지원	71,560,080	
합계	127,309,680	

2. 무상급식 예산 비교

구분	대상	금액(단위 : 천원)	비고
2017년 무상급식 예산 현황	초 1~6학년 중 3학년	56,405,242	
2018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초 1~6학년 중 1~3학년	73,540,000	예측 예산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의 차액		17,134,758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이제는 무상급식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대전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 발 뒤로 빼시던 교육감님이 아닌,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우리 시 관내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전교육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학교급식 대상은 교육청 소관인 학생이지만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자 시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시정의 중점방향으로 삼아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신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시 교육청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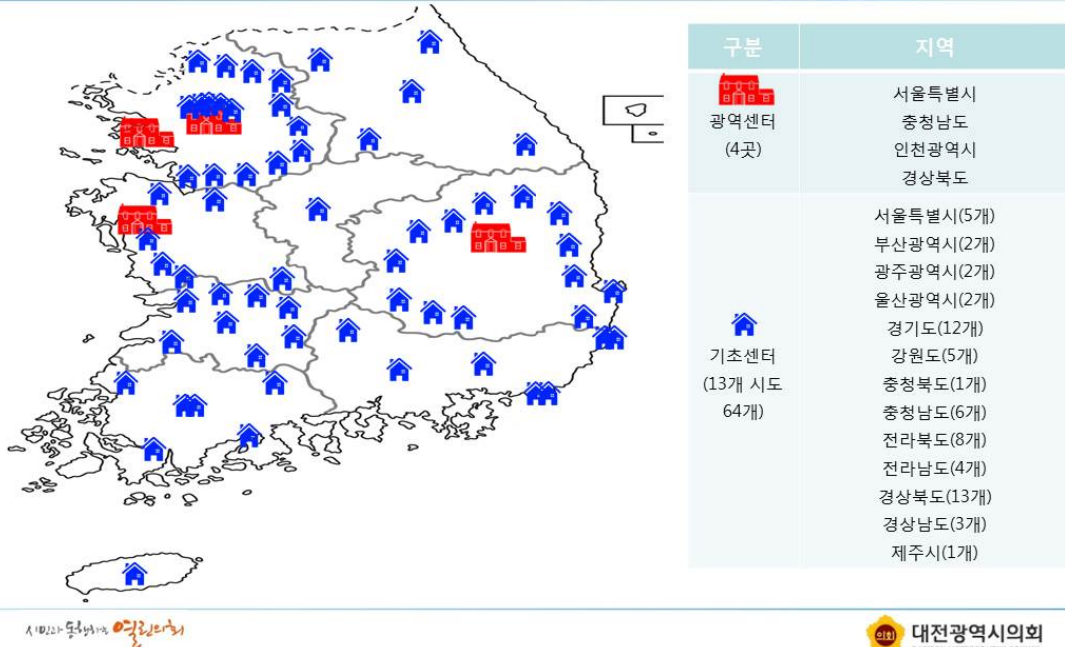
교육감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과 향후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역에는 안정적인 생산 공급원이 확보되고, 부실한 학교 식재료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며, 식재료 유통경로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이런 다양한 기대효과들로 인해 현재 전국에는 13개 자치단체에서 64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충남의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세종시도 2018년 11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대전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말씀드렸고, 조속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께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공감하신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진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이런 전향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설치 로드맵,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전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공급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환경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관련 인프라가 충족된 이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아이들은 언제쯤이나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님,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문제라든지 학교의 불량급식 문제, 급식납품업체 비리의혹 등을 볼 때 본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이 무엇인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학부모, 일선교사,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센터 설치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은 무엇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된 내용과 센터 설치를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실 것인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래인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추진에 보탬이 되는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시장 권선택

구미경 의원님께서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계획,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등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 및 향후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시, 자치구, 교육청은 금년도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 총 56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는 40%인 225억 원가량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교육청을 포함해서 모두 170여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돼서 분담비율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전 학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의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가 전 세계 핫이슈로 부각되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09년부터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실제 설립에 앞서서 막대한 재정 투입 문제, 학교 등 공공기관 식자재 공급업체의 생존 등 고려할 쟁점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행복위원회 토론회, 타 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향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계획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설치·운영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이 선결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 농가 수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그중 친환경 농가 수는 23가구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 확대, 로컬푸드 통합물류지원센터의 건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단체, 교육청, 지역 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예상해서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속히 설립방안을 가시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구미경 의원님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의 의지 및 향후 무상급식 확대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최근 오븐클리너인 수산화나트륨 사용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은 급식현장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의 의지 및 향후 무상급식 확대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중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무상급식예산은 총 56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할 경우 총 735억 원이 소요되며 지원비율은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와 대전시와 협의해서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대전시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미경 의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제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영양가 높고 맛있는 급식으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